

사료가격 또 6~7% 추가 인상

사료값 부담 못이겨 폐업농가 속출 1조 지원으로 역부족... 고곡가 시대에 맞는 경영전략 찾아야

사료가격 '06년 10월 이후 40% 인상

국제 곡물가격의 지속 상승으로 사료값의 부담을 못 이겨 폐업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배합사료업체는 2월말 평균 6~7%선에서 사료가격을 인상할 계획임을 밝혔다.

배합사료 가격은 지난 2006년 11월을 시작으로 2007년 3월, 5월, 10월, 2008년 1월에 이어 이번이 6번째 인상되었다. 이 기간 사료가격은 35~40% 가량 폭등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직 그 인상이요인이 남아있어 올해에만 다시 20%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곡물가격 역시 지난 2월 15일 현재 옥수수 가격이 톤당 320달러로 지난해말 311달러보다 9달러 올랐고, 대두는 618달러로 연말의 523달러보다 무려 95달러나 상승했다. 대두박 역시 512달러로 493달러보다 19달러나 오르는 등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 곡물 재고량도 급감추세

지난 2월 10일 농촌경제연구원이 미국 농무부(USDA)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세계 곡물수급 동향'에 따르면 2008 곡물연도(2007년 9월~2008년 8월)의 기말 재고량은 2007 곡물연도에 비해 8.1% 감소한 3억909만으로 전망됐다. 기말 재고율은 전년보다 1.8%포인트 하락한 14.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2008 곡물연도 기말 재고율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15.2%에서 12월에 15.0%로 낮아진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떨어졌다.

대두의 기말 재고량(2008 곡물연도 기준)은 전년보다 24.9%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고, 소맥(-10.8%), 옥수수(-5.6%) 등도 공급량보다 소비증가 속도가 빨라 재고량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표 1> 지난 3년간 배합사료 가격 인상추이

시 기	06. 11	07. 3	07. 5	07. 10	08. 1	08. 3
금 액	6~7%	6~7%	6~7%	6~7%	6~7%	6~7%

국제 곡물시장 수급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바이오 연료용 곡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중국·인도·브라질 등 고성장 국가들의 식용 곡물 수요증가, 육류소비 증대에 따른 사료용 곡물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기상이변에 따른 곡물작황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치솟는 곡물가격으로 사료·밀가루 등 중간재들 역시 시차를 두고 잇달아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애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돼지 한 마리당 4~5만원 적자

양돈전문 컨설턴트인 김형린 (주)맥스매직 대표는 “올해는 MSY(평균체중 110kg) 14두에 두당사료비는 181,000원, 생산원가는 두당 276,800원으로 두당 32,800원이 증가하여 연평균 서울기준 kg당 지육가격 3,250원(실질정산율 68.5%)을 감안한다면 전국 양돈농가는 두당 38,700원의 적자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그간의 경영악화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과 물가상승률에 따른 제반 비용의 상승까지 고려하면 올해 실제 적자폭은 두당 4~5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대한양돈협회 역시 양돈농가의 생산비를 자체 분석한 결과, 국내 양돈농가 평균 MSY 14두/년, 사료가격 14만4000원(kg당 480원, 25kg 기준 12포 섭취)기준의 양돈농가 생산비는 25만6천 원 상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10kg 한 마리의 돼지산지가격이 약 21만3000원(농협중앙회 100kg기준 19만3000원을 환산)인 점을 감안하면 출하할 때마다 마리당 4만3000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특히 향후 사료가격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그 적자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사료구매자금 1조원외 뚜렷한 대책 없어

사료가격이 폭등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사료값을 내지 못해 양돈업을 포기하는가 하면 사료업체에서 사료값 대신으로 농장을 인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돈농가들은 지난 2월 4일 인수위원회가 사료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원을 발표한데 대해 축산업계는 환영하면서도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사료업계의 가격인상의 최소화, 정부에게는 보다 구체적인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형 흥성지부 부지부장은 “FTA를 우려할 새도 없이 사료가격 인상이 양돈농가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며 “현재처럼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에서 형성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양돈을 포기하는 농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국제 곡물가가 예전과 같은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양돈농가들도 MSY를 올리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다 함께 모아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고곡가 패러다임에 맞는 축산경영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양돈**